

문화 · 학술 열기 7천 치의 하나로 / 우표전시 등 각종 공연 붐물... 볼거리 풍성  
강연장마다 최신 지견 학술충족 기회 제공  
치협 제45회 종합학술대회 · 치과기자재전시회 성료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aT센터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치협 제45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불우이웃에 대한 선행을 실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T센터와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대회가 이원화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회원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공영주차장과 aT센터 정문에 위치한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스티커마다 1천원씩 적립, 모두 1천만원을 소년소녀가장등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14일 열린 협회장배 골프대회에서는 성금을 모아 스마일재단의 이사인 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에게 전달, 장애우를 돕는데 활용기로 했다.

사전등록자를 포함 현장등록자까지 6500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120개 전시업체가 참여, 대회장인 aT센터와 서울교육문화회관은 행사기간 내내 북적거렸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도입된 백그라운드 뮤직, 시낭송, 자일리틀 · 애야라시 공연,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역사자료 전시, 우편 전시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이벤트들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15일 오후에 열린 환타지아 덴탈레에서는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인구 KBS 아나운서 사회로 인순이, 최성수, 전인권 등 인기가수와 덴탈코러스, 성악가 최현수 씨 등의 공연이 펼쳐져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서는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관람하는 아이들,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춤을 주는 관람객들, 환호하는 회원들로 모두 치과 의사 가족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며'를 주제로 하고 '신기술과 신재료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21개의 특강, 6개의 최신지견, 17개의 일반연제, 4개의 테이블클릭, 26개의 포스터 발표 등 총 80여개 연제가 발표돼 치의학의 최신 흐름과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회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테이블클릭 경연대회가 열려 개원의들의 학술적 성과를 뽐냈으며, 곽흥구 원장이 '중심위 채득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Gothic Arch Tracer(구내모기기록장치)'를 발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학술강연이 주로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특강을 들으려는 회원들로 붐볐으나 기자재전시회가 주로 열리는 aT센터의 강연장에는 회원들이 적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치과기자재전시회는 개회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4일 낮 12시부터 aT센터에서 오픈, 16일까지 3일동안 최신치과기기 및 치과재료 및 치과의약품이 전시됐다.

기자재전시는 aT센터 1층과 3층의 제 1, 2 전시장에서 120여개 업체가 참여, 343개 부스에 2250평 규모로 3000여종의 최신 기자재를 선보였다.

“외국면허자 무분별한 유입 막아야”  
정 협회장, 김문식 신임 국시원장과 환담

정재규 협회장이 5월 12일 취임 인사차 치협을 예방한 김문식 신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예비시험 제도 등 국시원의 운영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이날 예방에서 정재규 협회장은 국시원이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시 예비시험을 체계적이며 성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일부 실력 없는 외국면허소지자들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협회장은 “이를 위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엄격히 관리해 무자격자가 예비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내 치대를 졸업한 출신자를 보호하고 국내의료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국시원장은 “실기시험은 성격상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의나 법적인 이의 제기 소지가 있다”며 “객관성이 보다 높은 필기시험에서 실력이 없는 부적격자의 예비시험 통과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안으로 국시원의 해외면허 소지자 예비시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국시원은 앞으로 의약단체의 의견과 건의를 최대한 반영, 보다 객관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치협 등 9개 보건의료단체 용천 재해구호의약품 97톤 지원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구호를 위해 치과 의사들의 사랑이 담긴 의약품이 5월 4일 북한에 보내졌다.

치협을 포함, 의협, 병협, 약사회 등 9개 주요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범 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원'은 4일 오전 10시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 용천 재해구호의약품 97톤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재해 구호 의약품은 시가로 30억원 상당으로 안과용 수술장비와 화상전문치료제, 골절치료제 등을 위주로 했다.

치협은 이번 재해 응급 구호를 위해 5천만원을 약정했으며, 의협이 2억원, 제약협회가 4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등 각

단체마다 온정을 모았다.

또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보내와 지원 규모가 당초 1백만달러보다 커졌다.

지원 의약품은 4일 오전 11시30분경 북한 순안 공항에 도착해 용천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 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원단은 애당초 100여명 규모의 의료인력을 용천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으나 북측에서 현재까지 의약품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 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원단'은 북한 용천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북한 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 치협 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 조인식

치협은 5월 6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동양화재해상보험과 2004년도 치과 의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올해 치과 의사배상책임보험 주관사로 선정된 현대해상과 참여사로 선정된 동양화재는 이날 치협과 업무협정 조인식을 갖고 한해동안 빈틈없는 보험업무를 처리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치협 정재규 협회장과 양 보험사 대표는 이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서를 상호 체결하고 협약서를 서로 교환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정재규 협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결국 회원들을 위한 제도이고 보험사도 회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 1년동안 회사이미지, 회원불만 등을 체크하고 조사, 공개입찰을 통해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보험사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호일 현대해상 사장은 "치과 의사들의 배상책임보험을 신속하게 해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치협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좀 더 열심히 치과 의사 입장에서 처리하겠다. 이번 계약을 통해 재차 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정 조인식에는 치협에선 정 협회장과 윤두중 총무이사, 양영화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현대해상에서 김호일 사장, 허정범 상무, 이창길 이사, 동양화재에서 이규관 전무, 정창용 이사가 참석했다.